

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의안 처리** 2017년에 처리된 의안은 596건으로 조례안 461건, 예산안 8건, 결산안 2건, 건의안 19건, 결의안 7건, 동의안 28건, 승인안 2건, 기타 69건이다.


**전년도 결산 및 예산 확정** 제3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 회계연도 전라남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해 세입 7조5천 861억원과 세출 6조8천774억원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 3조7천513억원, 세출 3조2천868억원을 결산·승인했다. 제3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 예산 6조7천508억원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조5천543억원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건의·결의안 채택** 건의·결의안 총 26건(건의안 19, 결의안 7)을 채택해 국회, 정당, 청와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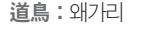


**도정질문** 제313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10명이 '공동주택 경비·청소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농가 폐비닐, 빈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 개선대책 및 공공일자리 창출방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계단 밑 등 사각지대에 CCTV 설치' 등 43건을 질의해 도지사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제316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20명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위해 인력과 조직 보강 대책', 'F1 서킷을 활용한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제31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전남도와 교육청의 실·국·원·사업소, 전남개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20, 주의 15, 개선 101, 권고 218, 건의 52건 등 총 406건을 지적했다.



## 경상북도



## 개 관

**연혁** 경상북도는 기원전 삼한시대 진한이 있던 곳으로 신라의 본토였다. 1314년 고려 충숙왕 원년 최초로 경상도라 불렸다. 이후 1896년 전국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북도라 칭하고 대구에 관찰사를 두었다.

1949년 대구·포항·김천이, 1955년 경주읍이 시로 승격됐다. 1963년 안동읍이 시로 승격되고 울진군이 경북에 편입됐다. 1966년 도청사가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서 북구 산격동으로

이전했다. 1978년 구미읍, 1980년 영주읍, 1981년 영천읍, 1986년 상주읍과 점촌읍, 1989년 경산읍이 시로 승격됐다. 1990년 의성군 신평면 안사출장소가 안사면으로, 1992년 달성군 화원면이 읍으로 승격됐다.

1995년 1월 1일 포항시와 영일군이 포항시로, 경주시와 경주군이 경주시로, 김천시와 금릉군이 김천시로, 안동시와 안동군이 안동시로, 구미시와 선산군이 구미시로, 영주시와 영풍군이 영주시로, 영천시와 영천군이 영천시로, 상주시와 상주군이 상주시로, 점촌시와 문경군이 문경시로, 경산시와 경산군이 경산시로 통합됐다. 1995년 3월 1일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고, 김천시 아포면이 아포읍으로 승격됐다. 1997년 11월 1일 구미시 고아면이 고아읍으로, 경산시 진량면이 진랑읍으로 승격됐다. 2003년 7월 1일 칠곡군 북삼면이 북삼읍으로, 2006년 10월 1일 칠곡군 석적면이 석적읍으로 승격됐다.

2016년 3월 10일 도정의 구심점과 상징성 확보, 지역정체성 제고,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도청을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서 경북 예천·안동으로 이전했다.

**면적·행정구역** 총면적 1만9천31km<sup>2</sup> 가운데 임야가 1만3천 613km<sup>2</sup>로 전체의 71.5%를 차지한다. 논(답) 1천761km<sup>2</sup>(9.3%), 밭(전) 1천255km<sup>2</sup>(6.6%), 과수원 156km<sup>2</sup>(0.8%), 대지 등 기타가 2천246km<sup>2</sup>(11.8%)이다. 2017년 말 기준 행정구역은 10시, 13군, 2구, 36읍, 202면, 94동, 14읍·면 출장소가 있다.

### ◀ 경상북도 면적·가구·인구

(2017년 9월 30일 현재)

구분	면적(km <sup>2</sup> )	가구(세대)	인구(명)
합 계	19,031.31	1,188,727	2,744,246
포항시	1,130.01	213,450	519,659
경주시	1,324.89	114,580	268,119
김천시	1,009.24	63,289	145,391
안동시	1,521.93	73,186	167,301
구미시	615.17	170,573	426,405
영주시	669.43	48,847	109,908
영천시	919.3	48,215	103,593
상주시	1,254.79	46,955	101,992
문경시	911.61	34,556	74,342
경산시	411.73	109,308	268,252
군위군	614.26	12,585	24,735
의성군	1,175.14	27,547	54,277
청송군	846.05	13,525	26,301
영양군	815.64	8,806	17,766
영덕군	741.1	20,076	39,571
청도군	693.79	21,854	44,387
고령군	384.09	16,199	35,568
성주군	616.13	22,070	46,564
칠곡군	450.93	53,102	125,330
예천군	661.38	22,870	48,455
봉화군	1,202.26	16,550	33,639
울진군	989.57	25,135	52,470
울릉군	72.87	5,449	10,221

\*인구: 외국인 제외

## 2018년도 경상북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22,314,303	19,407,692	2,906,611
지방세	3,495,180	3,495,180	0
보통세	3,042,190	3,042,190	0
목적세	415,000	415,000	0
2017년도 수입	37,990	37,990	0
세외수입	1,251,085	596,536	654,549
경상적세외수입	814,296	297,374	516,922
임시적세외수입	436,789	299,162	137,627
지방교부세	5,730,814	5,712,601	18,213
조정교부금	376,870	327,931	48,939
국고보조금 등	8,924,461	8,048,747	875,714
지방채	53,062	51,200	1,86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482,831	1,175,497	1,307,334

## 2018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22,314,303	19,407,692	2,906,611
일반공공행정	1,801,549	1,785,218	16,331
공공질서 및 안전	522,990	421,367	101,623
교육	161,196	161,196	0
문화및관광	1,409,911	1,396,517	13,394
환경보호	2,591,051	1,437,052	1,153,999
사회복지	6,008,553	5,458,253	550,300
보건	383,266	383,266	0
농림해양수산	2,866,653	2,865,023	1,630
산업·중소기업	555,373	406,937	148,436
수송및교통	1,107,550	1,054,552	52,998
국도및지역개발	2,050,914	1,313,527	737,387
과학기술	39,688	39,688	0
예비비	312,860	307,069	5,791
기타	2,502,749	2,378,027	124,722

## 재 정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22조3천143억원이다. 이 중 본청 예산은 34.97%인 7조8천36억원, 23개 시·군 예산은 65.03%인 14조5천107억원이다.

## 중점 추진사업

**최고의 복지, 좋은 일자리와 투자 유치**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지원 조례 및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복지카드 등 경북형 일자리모

밀을 만들었다.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화장품 기업 22개사 등 민간으로 확대했다.

청년 취·창업 네트워크 공간인 '청년 괴짜방'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대상, 사회적기업의 날 10주년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총 5조1천880억원 유치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비 확보와 균형 발전** SOC 분야 3조원, R&D 분야 6천억원, 농림수산 분야 1조1천억원 등 총 10조3천656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도청 이전터 개발, 차세대 그린백신 상용화 실증센터 건립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 총 4개 노선을 개통해 도내 반나절 생활권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4차 산업혁명 선도적 대응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2017년 5월 산학연 혁신 주체 100명이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발족하고, 12월 스마트팩토리 IoT플랫폼 개발보급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에도 주력했다. 7월 독일 CFK밸리 한국사무소 개소, 10월 국내 최대 탄소산업 조합 설립, 12월 영국 AMRC 'Asia 거점센터'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과 '탄소 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구축했다.

7월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 개소와 안전로봇 실증단지 구축 등으로 로봇산업 육성에 노력했다. 1월 백신글로벌산업허브기반 구축사업단 설립 등으로 백신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12월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다양한 미래 먹거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화교류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한-베 수교 25주년을 맞아 개최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에 30개국에 참가하고 388만 명이 관람했다. '문화를 통한 경제엑스포'를 표방하고 경북우수상품전, 비즈니스컨퍼런스&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총 2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호찌민-경주엑스포 2017'의 성공 개최와 동서양 문화를 존중하는 실크로드 정신을 알리기 위해 '2017 실크로드 청년문화 교류대장정'을 실시했다. 8개국 11명의 해외 청년을 포함한 182명의 탐험대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방문해 문화교류와 우호협력 활동을 펼쳤다.

**지방분권 선도 및 도민중심 소통 강화** 10월 26일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관용 도지사가 제2국무회의의 헌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등 지방분권 추진에 앞장섰다.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국회 결의대회, 전국 지방분권개헌추진리더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협력담당관을 신설했다.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SNS 기사단 운영(50명), SNS 연계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했다. 공식 SNS '두드림' 운영과 카드뉴스·클립영상·라이브 방송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강화로 제10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 소셜미디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비상대비태세 확립** 11월 15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에 신속히 대응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 3분 만에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예비비 4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현장지원단200명을 급파했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주거안정대책 발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했다.

지진 발생지역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특별재생지역'이라는 제도 신설을 이끌어냈다.

**농업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돌봄치유농장' 4개소를 시범운영했다.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맞춰 농업 활동을 통해 치매를 치유·치료하는 사업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촌 공동체 회복과 치매 치료라는 세 가지 효과를 거둬 주목을 받았다.

농어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 수출 프런티어 기업 19개, 수출전선 생산단지 50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경북 마늘출하조정센터와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국책사업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환동해안 바다시대 개막, 전략사업 발굴 육성** 도청이 북부 권으로 이동한 데 따른 동남권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환동해지역본부 설치를 추진, 2017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결정을 얻어냈다.

2025년까지 3조5천203억원을 투자하는 '신 동해안 해양수산 마스터플랜'을 추진 중으로 해양치유 기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연구 공모, 해안내륙권 연계 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공모 등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영덕 고래볼 해양복합타운과 경주 주상절리 해양경관 조망벨트 조성을 완료했다.

'독도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외자문위원, 교민방송국, 재외문화원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인과 함께하는 사이버 독도'를 운영했다. 독도 학술광고 시리즈(5편)는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더불어 함께 누리는 희망복지 구현** 조부모 중심의 새로운 가족문화를 제시한 '할매할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3월)하고, 손주맛이 조부모교육, 밥상머리 교육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할매할배의 날 확산에 노력했다.

치매 보듬마을을 15개로 확대하고 맞춤형 독거노인 돌봄 시스템과 행복경로당을 운영해 노인 복지 3대 약속을 실천했다.

**문화관광 콘텐츠 명품화** 경북의 대표 문화콘텐츠인 '엄마가 투리'는 2014년 EBS를 통해 방영된 이후 2017년까지 유아 애니메이션 부문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관련 서적 판매와 뮤지컬 제작 등으로 4억8천만원의 로열티 수입을 올렸다.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대통령상, 베스트 인성 클린 콘텐츠 애니메이션 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9월 베트남 국영교육방송 VTV7, 중국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했고, 2017년 15개국 24개 방송사와 방영을 협의했다.

## 산업

**농·축산업** 도내 논은 12만7천ha, 밭은 14만8천ha가 있다. 쌀 59만, 보리 2천, 콩 2만 등을 생산하고 있다. 도내 농기계

수는 경운기 13만5천 대, 트랙터 4만7천 대, 이앙기 4만5천 대, 기타 21만9천 대 등 총 44만6천 대이다. 쌀 전업농은 1만 호이다.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축은 한우 57만7천 두, 젖소 3만6천 두, 돼지 120만2천 두, 닭 2천274만 수이다.

**임업** 임야면적은 국유림 26만4천ha, 공유림 10만7천ha, 사유림 96만7천ha 등 총 133만8천ha이다. 침엽수 56만7천ha, 활엽수 35만ha, 혼효림 39만ha, 무입목지 등 기타 3만1천ha로 분류된다.

**수산업** 도내 어항은 해양수산부 지정 14개, 도지정 22개, 시군지정 94개 등 모두 130개이다. 선박은 동력선 3천277척, 무동력선 124척 등 총 3천401척이다. 어촌계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 시·군에 153개, 어업인은 2천818가구에 6천668명이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기타 수산물 등 어획한 수산물은 11만2천으로 4천682억원 어치다.

**광업** 2017년 12월 말 기준 도내 가행광산은 금속 19개소, 비금속 136개소 등 155개소로 347명의 광원이 일하고 있다. 석회석 62만, 규석 19만, 고령토 24만, 불석 9만 외 아연광, 연광 등 금속광물도 생산되고 있다.

**공업** 금속가공,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섬유가 주류를 이룬다. 2015년 말 기준 제조업체 2만6천496개에 32만3천127명이 종사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2016년 10월 말 기준 69개 단지, 1천70만㎡를 조성 완료했고 952개 업체가 입주했다.

**상업** 상공회의소가 설치돼 있는 곳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등 10개 시·군이며 회원 수는 4천50명이다.

공설시장 95개소와 사설시장 104개소가 있다. 백화점 3개소, 쇼핑센터 5개소, 전문점 2개소, 대형마트 24개소, SSM 73개소가 있다.

**금융** 금융기관 점포수는 2014년 12월 기준 총 2천304곳이며, 그 중 은행 금융기관이 282곳, 비은행 금융기관이 2천22곳이다.

## 사회

**주택** 2016년 12월 말 기준 아파트 46만1천577호, 단독주택 45만6천724호, 연립주택 2만9천91호, 다세대주택 4만5천793호 등 총 100만9천941호이며 113.0%의 주택보급률을 기록했다.

**교통** 2017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대수는 139만2천151대로 승용차 102만2천56대, 버스 5만1천349대, 화물자동차 31만1천546대, 특수차 7천200대다.

**후생** 종합병원은 19개소, 병원은 2천743개소(일반병의원 1천341개소, 치과병원 655개소, 한방병·의원 626개소, 기타 121개소)이고, 5천478명(의사 3천596명, 치과의사 901명, 한의사 981명)의 의사가 종사하고 있으며 병상 수는 4만2천77개이다. 약국은 1천55개소에 약사는 1천598명이다.

장애인시설 88곳에서 2천570명, 정신보건시설 5곳에서 864명, 한센생활시설 2곳에서 154명, 노숙인시설 4곳에서 341명, 노인복지시설 423곳에서 1만3천33명 등 전체 522개 시설에서 1만6천962명이 생활하고 있다.

## 문화

**교육** 2017년 4월 기준 유치원 710개소에 3만9천836명, 초등학교 468개교에 12만7천642명, 중학교 262개교에 6만5천906명, 고등학교 188개교에 8만4천926명, 전문대학 16개교에 4만3천982명, 대학교 18개교에 15만9천290명, 대학원 78개교에 1만2천942명, 기타 4개교에 7천927명 등 총 1천744개교에 54만2천451명이 재학 중이다.

**종교** 교회 2천870개소, 성당 119개소, 사찰 2천139개소, 기타 93개소 등 5천221개소의 종교 시설이 있다.

**문화재** 국보 57, 보물 328, 사적 99, 천연기념물 68, 명승 15, 중요 민속문화재 89, 국가무형문화재 12, 등록문화재 38 등 국가지정문화재 678점이 있다. 도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442, 기념물 152, 무형문화재 36, 민속문화재 158 등 788점이 있으며 문화재자료 555점 등이 관리되고 있다.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64개소, 박물관 67개소, 미술관 11개소가 있다.

**문화·축제행사** 2017년 개최한 주요 문화·축제행사로는 대계축제(영덕 4월), 대가야체험축제(고령 4월), 전통차사발축제(문경 4월), 산나물축제(영양 5월), 영주선비문화축제(5월), 보현산별빛축제(영천 7월), 자두체험축제(김천 7월), 은어축제(봉화 7월), 국제별빛축제(포항 7월), 오징어축제(울릉 8월), 갯바위소원축제(경산 9월), 이야기축제(상주 10월), 반시축제(청도 10월), 풍기인삼축제(영주 10월), 사과축제(청송 11월) 등이 있다.

**관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석굴암, 불국사를 비롯한 700점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주왕산 국립공원 등 7개 국립공원과 9개 도·군립공원, 25개소의 해수욕장, 25개소의 자연휴양림, 90개의 온천, 37개소의 관광지, 청정해역 울릉도가 있다.

## 의정활동

### 원구성

〈의장〉 김응규

〈부의장〉 고우현, 장두욱

〈정당별 의석〉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자유한국당 56, 더불어민주당 2, 무소속 2명이다.

**상임위원회**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 등 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윤리, 지방분권추진, 원자력안전, 독도수호, 대구공항이전, 저출산·고령화대책, 경북·대구 상생발전, 지진대책 등 9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회기운영** 총 회기는 7회 125일간 의회를 운영했으며, 정례회는 2회 60일, 임시회는 5회 65일을 운영했다.

**도정질문·의안처리** 도정질문은 15명 53건이었으며, 안건 처리는 241건으로 조례·규칙안 168건, 예산·결산안 10건, 동의·승인안 24건, 결의안 등 39건을 처리했다. 도내 84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 전개** 전반기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후반기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정책중심 의회운영으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실현** 제10대 전반기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운동과 전남도의 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지역사회 각계각층 100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의회포럼을 출범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했다.

후반기 도의회는 재난현장, 전통시장, 주요 사업장 등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했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도정현안 특위 가동, 정책연구 활동, 불필요한 조례 일제정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협약 등 정책 중심의 의회 운영에도 힘썼다.

조례·규칙안 168건, 예·결산안 10건, 동의·승인안 24건, 결의안 39건 등 총 2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경상남도



**道花** : 장미      **道鳥** : 백로

**道木** : 느티나무    **캐릭터** : 경남이와 경이

**도청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도지사 권한대행** : 한경호(韓經浩)

## 개관

**연혁** 삼한시대에 북부는 진한, 남부는 변한의 영토였다. 서기 42년 김해의 금관가야가 경남 전역을 장악한 이후 가야문화가 발달했다. 법흥왕 19년(532년) 신라에 병합된 후 신라 9주 5소경의 일부인 양주(良州)와 강주(康州)가 됐다.

고려 예종 1년(1106년) 경상진주도로 개칭됐다가, 충숙왕 1년(1314년) 경상도로 처음 불렸다. '경상'이라는 지명은 고려 때 이 지방의 대표적 고을인 경주와 상주의 머리글자를 합해 만든 지명이다.

조선 고종 33년(1896년) 전국을 13개 도로 나눌 때 경상도에서 경상남도가 분리됐다. 도청소재지는 진주였다가, 1925년 4월 1일 부산으로 이전했다. 이후 1963년 1월 1일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상남도에서 분리됐으며, 1983년 7월 1일 도청이 부산시에서 현재의 창원시로 이전됐다. 1997년 7월 15일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경상남도에서 분리됐다.

경남도청이 일제강점기 때 진주에서 부산으로 강제 이전된 지 90년 만인 2015년 12월 17일 진주시에 경남도 서부청사가 개청됐다.

**면적·행정구역** 총면적은 1만539㎢(전국의 10.5%)이다. 800여 개 섬이 경상남도 전체 면적의 8.9%를 차지한다. 2017년 말 기준 인구는 345만6천584명(내국인 338만404명, 외국인 7만1천180명)이며, 행정구역은 8시, 10군, 314읍·면·동이 있다.